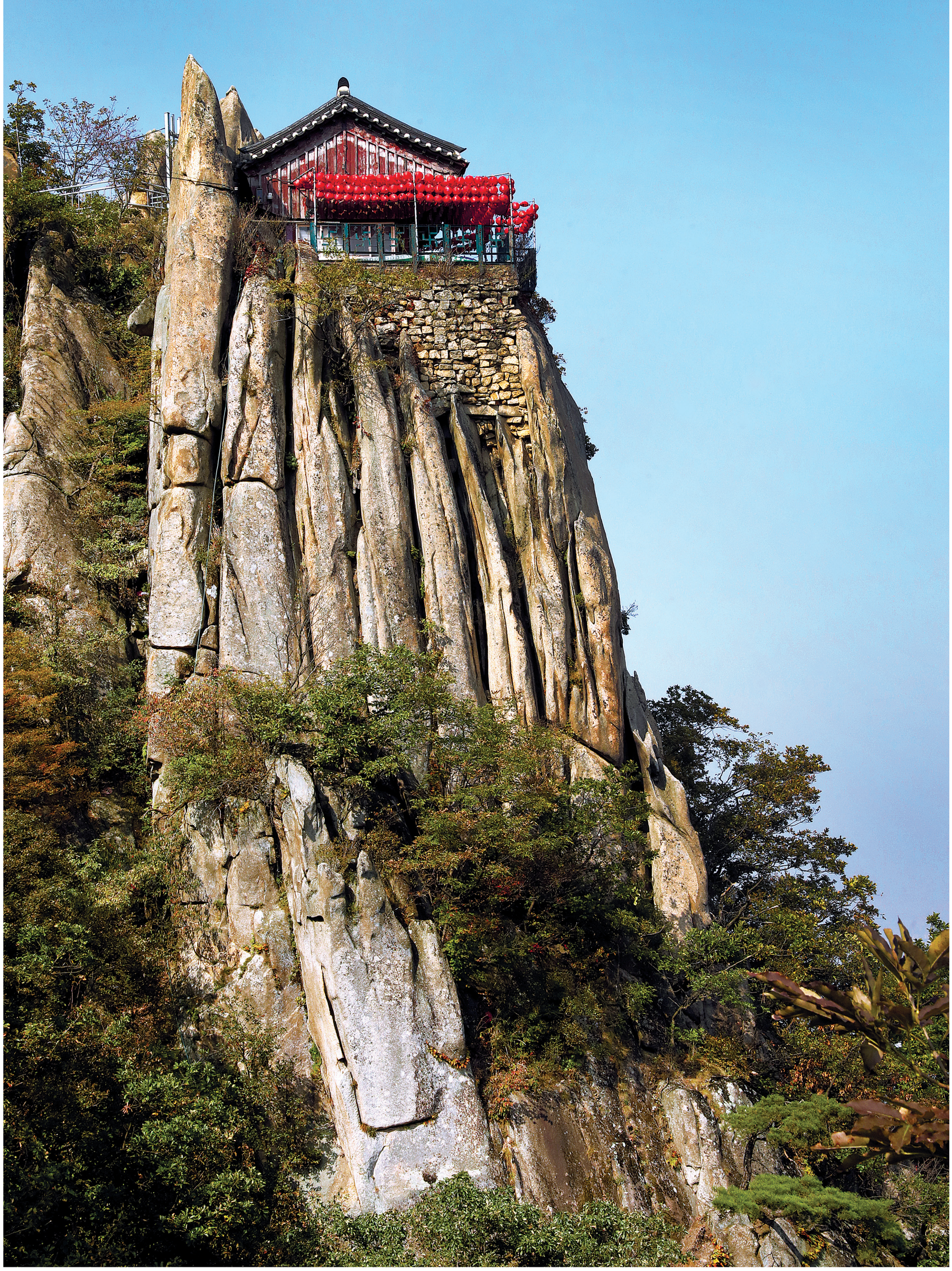
시대의 그리움 달랜 수행처



바람도 머문 곳, 암자

⑦ 과천 연주암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해발 629M 벼랑 끝에 오르면 속세의 모든 미련과 그리움을 끊어낼 수 있을까. 그 옛날, 사라진 고려를 잊지 못했던 고려의 마지막 신하 셋은 그 그리움을 끊어내기 위해 절벽 끝으로 올랐다.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흐른 어느 날에는 보위에 오르지 못한 조선의 두 왕자가 시절의 미련과 그리움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같은 곳을 찾았다. 하늘인지 땅인지 모를 그곳은 나한의 도량이었다. 기도가 전부인 하루와 멀어진 시간이 전부였던 그들은 나한의 품에서 한 시대를 잊었다. 그리고 시절과 함께 사라졌다. 도량은 관악산(해발 629M) 정상에 자리한 연주암이다. 그리고 도량의 끄트머리 기암절벽에는 마지막 그리움을 태우는 자리 연주대가 있다.

그리움으로 걷는 길

짙어가는 가을 하늘 아래 관악산 봉우리가 가을꽃처럼 피어있다. 10월에 접어든 하늘은 하루가 다르게 짙어가고 숲엔 단풍의 예감이 보인다. 산 밑의 등산로 입구에서 연주대가 있는 관악산 정상까지 가는 길은 약 3.5KM 길이다. 걸어서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여러 코스가 있다. 과천향교쪽 등산로에서 시작한다.

그 옛날 그리움을 끊어내기 위해 고려의 신하들과 조선의 왕자들이 걸었던 발자국을 따라 길을 시작한다. '먼 길' 이라고 생각하니 몸과 마음이 팽팽해진다. 길을 시작하면서 산 정상을 바라본다. 아직 암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벌써 암자의 마당을 거닐고 있다. 가슴 속으로는 법당의 향 내음이 다가온다. 백구나 황구도 한 마리쯤 도량을 거닐고 있을까. 스님의 염불기도소리, 응진전 나한의 분명한 눈빛들, 연주대에 서있을 누눈가의 그리움, 이 생각 저 생각이 마음속에 빼곡히 들어찬다.

한 걸음 한 걸음 산길을 오르며 그 옛날 고려의 신하들과 조선의 대군들을 생각해본다. 그 시절은 어디에도 없는데 그 옛날은 분명 길 위에 있었다. 그들이 품었던 그리움도 함께 따라가 본다.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가을바람을 따라 숲으로 사라진다. 숲에는 가을이 오고 있다. 나뭇가지가 가벼워지고 나뭇잎은 늙어간다. 모든 것들은 이제 덜어내고 덜어지고 있다. 그리움을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다.

그 옛날 그들의 그리움은 시대가 만든 그리움이었다. 그리움이 되지 않은 시대가 있을까. 모든 시대는 언젠가 저물고, 저문 시대는 그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절 속에서 소소한 그리움들로 살아간다. 숲의 한 시절도 저물어간다. 모든 것들은 이제 그리움이 되는 일만 남았다.

그 옛날 고려의 신하는 기울어가는 고려의 충신 강득룡, 서견, 남을진이었다. 세 신하는 연주대에 올라 고려의 도읍 쪽을 바라보며 저무는 한 시대와 한 나라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그리움을 이내 씻었다. 이들 셋이 그 옛날 연주암을 찾았을 때는 연주암의 편액이 '관악사' 였다. 연주대의 이름도 지금과 달랐다. '의상대' 였다.

두 왕자는 조선 태종의 두 아들 양녕과 효령대군이었다. 태종이 창녕대군에게 보위를 내주자 두 왕자는 왕좌의 미련과 왕조의 그리움을 끊기 위해 멀리 멀리 걸었다. 그 때도 역시 연주암은 관악사였고, 연주대는 의상대였다. 먼 길을 걸어왔지만 두 왕자의 그리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점점 더해갔다. 두 왕자는 할 수 없이 왕실이 보이지 않는 자리로 관악사를 옮겨 짓는다. 지금의 연주암 자리는 그 때 옮겨 지은 도량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두 왕자는 그리움을 끊고 싶었던 것이다.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에서 생활 〈8〉

B4 책세상
용수 지음 〈용수 스님의 코끼리〉

B5 문화
동천 엄기철 제3회 서예 개인전

B6 학술
'性別空性' 새 선사 모델 보여준 대행선사